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미 사 성 가	입당 (25)	봉헌 (216)	성체 (180)	파견 (6)
---------	---------	----------	----------	--------

제1독서 | 1사무 3,3ㄴ-10,19

화답송 | 시편 40(39),2ㄱㄴ과 4ㄱㄴ.7-8ㄱㄴ.8ㄷ-9,10(◎
8ㄴ과 9ㄱ 참조)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2독서 | 1코린 6,13ㄷ-15ㄱ.17-20

복음환호송 | 요한 1,41.17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복음 | 요한 1,35-42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7	유 요한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14	이 그레이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21	이 마틸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4	이 그레이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73	\$79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16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1/20	김 요아킴/ 고 안나
12/23	이 요한/ 이 마틸다	1/27	김 유스티노/김유스티나
12/30	유 요한/ 유 마리아	2/3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1/6	홍 마르코/ 홍 아네스	2/10	장 글라라/ 이 데레사
1/13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2/17	김 헬레나/ 박 세라피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오는 성체조배는 2 월 1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 시

이번 임원회의는 1/14/18(오늘)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8:00

성가와 성경 읽기, 나눔으로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것입니다.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박 바오로 (661-342-7130)

모임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축하해 주세요 (오늘 오후 3 시)

김희정 요아킴 형제님 (Heui Joung Kim - Joachim)

고순영 안나 자매님 (Soon Young Ko - Anne)

장소: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12300 Reina Rd. Bakersfield, CA 93312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인공동체에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정세현-레오 형제님, 황연경-안나 자매님, 정한나-아나스타샤 딸

**** 성가책을 돌려주세요 ****

우리 공동체가 사용하는 성가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가정으로 가져가셨다가 안가져오신 성가책이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018 년도 매일미사 책값 안내

2018 년도 미사책값이 권당 50 블로 책정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 매달 필요하신 권수대로 이그레이스 자매님께 납부 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어머니이신 하느님

송혜숙 안나 -前 서울예술대학 교수-

얼마 전, 제게 세례를 주셨던 신부님께서 다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수술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입원하고 계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르쳤던 예술대학에서 사제 간으로 만났고, 사제서품 받으시던 해에 첫 영세자가 되고 싶었던 제게 세례를 주신 신부님입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했던 상황을 들은 저는 걱정하며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신부님은 발에만 붕대를 감고 계셔서 안도했습니다. 신부님의 성품상 부모님께 다친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을 듯해서 여쭙보니 어머니에게는 사촌형님이 알려주셔서 다녀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걱정하셨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어머니는 “다른 신자 형제 분이 다치지 않고 신부님이 다치셔서 다행입니다”라며 그분께 위로를 전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밖에서 상처받는 일을 겪으면 늘 내 자식의 안위를 확인하고는 함께 있던 주변 사람들의 안위도 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면서, 자식에겐 응급조치만 취하고 견뎌내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운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때 어머니의 그런 무심했던 것 같은 외면과는 달리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보다 더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무심한 듯 살피셨을 그 마음을 참고 기다리고 견뎌내도록 옆에서 늘소리 없이 기도하셨을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정

수를 나는 성모님에게서 배웁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술한 매와 모욕과 수모를 당하시면서 묵묵히 걸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아들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시고 견디셨던 그 큰 인내와 희생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내 아들이 다쳐서 슬프다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의연하게 아드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전체를 아우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신부님의 소식을 듣자 호들갑을 떨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이는 아픔에 대해서만 안타까웠을 뿐 그 상황 밑바탕에 숨겨진 신비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작할 수도 없는 나의 경박함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감정이 들끓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메시지 같은 시련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은총은 아닐까요?

“사랑이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1코린 13.4-7 참조)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그 시련을 통해서 말씀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역동적인 은총이며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습니다.

<서울주보에서>